

제28대 총학생회 선거 실시

투표율 46.9%, 기호 1번 소영주, 김남진 후보 당선



소영주 회장(가운데), 김남진 부회장 당선자가 개표 결과 이후 축하를 받았다.

우리 대학의 학생 대표를 뽑는 제28대 총학생회 선거가 지난 11월 19일 치러졌다.

올해는 기호 1번 '시나브로 학생회' 소영주 무인항공드론과 회장 후보와 김남진 스포츠·경호과 부회장 후보 단독 출마로 선거가 진행되었다.

후보자들은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여암학술정보관과 통학버스 하차장에서 투표 참여 독려와 지지에 대한 선거운동을 실행했다. 19일 온라인 투표로 실시된 선거에서 전체 선거인 4,697명 중 2,203명이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찬성 1,669표, 반대 543표

가 집계되었다.

소영주 학생회장 당선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활동하고, 배우는 회장이 되겠다."며 "지금부터 학교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솔선수범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남진 부회장 당선자 또한 "전역하고 복학하자마자 중요 자리를 맡게 되었다. 회장과 함께 즐겁고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이들이 내세운 공약은 회장, 부회장 후보이기 앞서 재학생으로서 겪었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수립되었다고 한다.

주요 공약으로 ▲학우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소통 수단 확대 ▲여암학술정보관 시설 개선 ▲강의실 및 화장실 시설 개선 ▲문화의 날 지정 ▲학생 참여 이벤트 확대 등이다.

올해 총학생회 선거는 46.9%를 달성,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높은 관심이 선거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날씨 문제 등으로 선거 운동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높아진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28대 총학생회 선거였다.

김진하 기자

추운 겨울 따뜻함의 향연

따뜻함을 채우는 재능나눔 봉사, 연탄 봉사 실시

연말을 맞이해 지역 상생을 위한 봉사가 진행되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12년 사회봉사단을 결성, 매년 연탄봉사, 학과 재능 기부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봉사를 실시해왔다.

지난 11월 25일 본부3층 지식터에서 치위생과, 안경광학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보건의료행정과, 호텔조리베이커리과 7개 학과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지역어르신과 함께하는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참여 학생들은 이제까지 배운 전공을 살려 지역 주민 300여명에게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치위생과는 불소, 칫솔 나눔을 통해 치아건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였다. 안경광학과는 시력 검사를 통해 렌즈 및 돋보기 나눔 봉사를 열었고, 물리치료과와 작업치료과 또한 각각 도구를 이용한 물리치료 및 인지검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보건의료행정과는 인바디와 혈압 측정을 통해 기본 건강 지킴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호텔조리베이커리과는 떡과 매실차를 배급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실습하는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경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12월 3일에는 재학생 및 동문, 교직원 70여명이 참여한 연탄 나눔 봉사가 이뤄졌다. 여주 북내면과 중앙동 일대에서 진행된 봉사는 해당 지역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6개 가구에 500장씩 총 2,000장의 연탄을 나누며 마무리되었다.

봉사를 주관한 학생지원처는 "지역 거점 대학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을 실현 해가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성 교육을 실천할 것"이라 말했다.



지면안내

1면 주요기사

- 제28대 총학생회 선거
- 지역나눔 봉사활동 진행

2면 교내

- 설립자 유품 박물관 기증
- 아우디코리아 차량 기증식
- OBS-여주시 3자 협약
- 선서식 및 졸업작품전
- 교내소식

3면 사람

- 박세원 학우 인터뷰
- 교내 단신

4·5면 기획

- 제21회 문예대상 공모 수상작

6면 특집

- 학교를 만나다 - 무인항공드론과

7면 광장

- 칼럼
- 흙빛 중세도시
- 히바(KHIVA)를 가다
- 기자수첩
- 악플을 고발하다
- 사설

8면 문화

- 아침고요수목원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 「리버포이」
- 독자퀴즈

학보비 안내

* 학보비는 『여주대신문』 제작에 쓰입니다. 학우들의 원고와 취재를 통해 제작되는 학보 발간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고

* 여주대신문에서는 학우들의 원고 투고(자유 주제로 A4 1장 분량)와 독자 의견을 받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한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간사 | 2007704@yit.ac.kr 또는 031)880-5498, 학보사 페이스북 메신저로 문의 및 투고 바랍니다.

설립자故여암 정동성 박사 유품 국립체육박물관에 기증

우리 대학 설립자인故여암 정동성 박사의 유품이 유가족의 뜻에 따라 국립체육진흥공단에 기증된다.

기증한 유품은 액자 4점을 비롯 사진 3장 등 총 7점으로 오는 2022년 하반기에 개관될 '대한민국 국립체육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기증한 유품은 과거 체육부 장관 시절 최초로 남북체육교류를 성사시키면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형진 북한체육지도위원회위원장(남북체육교류 북측수석대표)으로부터 기념으로 받은 것으로, 북한의 미술품과 당시 촬영한 단체사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품들은 국립체육박물관 학예연구와 전시에 쓰이며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에 귀중한 유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본부 5층 총장실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고기채 총장과 정태경 대외부총장, 고재곤 산학협력처장 등 대학 관계자와 김재규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체육박물관 과장, 이종삼 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여암 정동성 설립자는 체육부 장관 재직 시절 1990년도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통일축구경기대회'를 성사시켰다. 당시 분단 조국에서 통일 조국으로 가는 초석을 닦았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자동차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스빌동 진행



지난 10월 24일 자동차과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산하 아우디 부문으로부터 A7와 A5를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된 차량은 자동차과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하는 아우스빌동 프로그램 트레이니(훈련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론 수업 및 실습기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올해부터 '아우스빌동(Ausbildung, 독일식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오는 2020년 아우디 부문 공식딜러사에서 훈련 중인 트레이니들이 본교 자동차과에 입학할 예정이다. 아우스빌동 프로그램은 일과 학습을 병행해 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독일 직업교육 시스템이다. 현재 여주대와 두원공과대학, 영남이공대가 협력 교육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 분야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우수인재들이 기업의 현장교육과 대학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있다.

자동차과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아우스빌동 참여와 교보재 기증에 감사드린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함께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최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차량기증식에는 마정순 여주대 부총장, 박민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상무, 수잔네 뵘엘레 한독상공회의소 부대표 및 관계자와 자동차과 교수진 및 학생들이 참석했다.

한글도시를 꿈꾸다

여주대·여주시·OBS경인방송 한글문화 계승 업무협약

우리 대학과 여주시, OBS경인방송이 지난 11월 4일 '한글의 도시, 여주' 구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글 관련 콘텐츠 제작과 한글 교육의 활성화, 한글의 가치를 홍보하기로 합의했다.

여주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고기채 총장, 이항진 여주시장, 박성희 OBS 대표이사를 포함, 세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한글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7개 내용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한글 창제자인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한글도시 여주'의 이미지를 고취하고 다양한 한글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으로 활용해, 한글의

가치를 앞장서서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고기채 총장은 "여주시에 있는 대학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글 교육과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업무협약의 의미를 전했다.

이항진 여주 시장과 박성희 OBS 대표 또한 "한글의 우수성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 기관이 힘을 합쳐 한글 도시 여주의 위상을 발전 시키자"고 의지를 더했다.

협약 이후 세 기관은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한글콘텐츠 개발과 한글문화 계승 발전을 실현할 계획이다.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창업특강

지난 12월 3일 봉사관 콘서트홀에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창업특강' 행사가 진행됐다.

창업지원단이 주최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인 'Y-Creative Factory' 프로그램으로 열린 이번 경진대회 및 특강에는 15개팀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15개 팀은 2학기 동안 지도교수와 멘토들의 지도 아래 자신들이 스스로 제안한 아이디어를 갖고 다듬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경진대회는 드론을 활용한 사업, 의료서비스, 리사이클링 제품 등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는 등 수준 높은 대회가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은 최신 드론을 이용해 VR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안한 항공전자통신과 동아리 'VR드론팀'이 차지했다. 환경보호와 체험이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해 다양한 계층에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작업치료와 동아리는 '삼킴장애를 가진 환자를 위한 일회용 친환경 손가락'을 제안했다. 위생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녹말로 만드는 일회용 손가락도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유해조수 퇴치 아이디어도 관심을 끌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퇴치가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아이디어라는 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보육교구 개발, 휴대용 렌즈세척기, 건강카페, 추억의 사진관, 업사이클링 가방과 소품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아이디어에 심사위원들도 놀랐다는 후문이다.

심사위원들은 15개팀 모두 수준 높은 아이디어를 선보였다고 평가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실제 창



업시장 도전도 가능하다는 총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창업동아리 결성부터 아이디어캠프, 창업캠프, 사업계획 멘토링의 체계적인 지도로 예년에 비해 높은 참여도와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상철 변리사(가드국제특허법률)와 김범진(타이거컴퍼니 대표)가 각각 '지적재산권 상식'과 '창업을 해야만 했던 단 한 가지 이유' 주제로 특강도 가졌다.

여주대 창업지원단 관계자는 "내년에도 체계적인 대회 프로그램으로 대학창업 분야에서 여주대가 창업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 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Y-어벤져스 경진대회 개최

우리 대학 학생처에서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용하는 시설 및 서비스, 교육제도 및 환경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창의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 제안하는 Y-어벤져스 경진대회를 지난 11월 28일(목) 마로니에홀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Y-어벤져스 경진대회 프로그램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유형 1차년도 사업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15개학과 27개 팀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17개 팀을 선정하여 총 7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였다.

1등은 도서관 시설 사용의 불편함을 지적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많은 학생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은 물리치료과 남선우 학우가 수상했다. 그 외에도 치아 건강을 위한 양치대 설치, 프리마켓 운영, 모바일 학생증, 학과 실습실 개선, 도서관 시설 및 이용방법 개선, 학생식당 개선 방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학생처는 이번 Y-어벤져스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교육 제도 및 교육 환경의 개선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대학 운영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헌혈 활동 전문대학 전국 1위

우리 대학이 2019년 상반기 기준 대한적십자사 헌혈 참여인원 전체 대학 기준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우리 대학은 매년 학기별로 2회씩 총 4회 이상의 헌혈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662명, 2016년 954명, 2017년 1,380명, 2018년 1,051명, 2019년 2,186명의 학생 및 교직원인 헌혈활동에 참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국혈액암

협회에 3,000매의 헌혈증을 기부해 혈액수급 안정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12월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김정동 학생지원처 담당은 "교훈인 사랑, 봉사, 실천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헌혈을 통해 사랑 나눔을 실천해준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터뷰 ... 노래하는 달 박세원 학우

이름이 특이하다. 소개 부탁한다.

17학번 실용음악과 작곡전공에 재학 중이다. 전공공부를 하면서 나만의 특색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노래하는 달이라는 말이 떠올랐고 활동명으로 지었다. 솔로로 활동하기도 하고, 학과 특성상 팀으로 활동도 한다. 팀은 저를 중심으로 모인 한국음악 프로젝트 팀 성격을 가진다. 팀원들과 함께 각 노래에 필요한 악기 구성을 섭외해서 활동한다. 개인이나 팀의 경우 한국 고유의 정서와 현대 음악을 콜라보하는 것을 지향한다. 전통을 대중화하는데 의의가 있고, 이런 색을 담은 음악을 만들고 있다.

인천평화창작가요제 대상, 대학가요제 본선 등 경력이 화려하다.

각 대회마다 많은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참여한다. 그 중 전통적인 색을 담아 저나 우리 팀의 노래가 눈길을 끌었다 생각된다. 감사한 일이다.

우선 인천평화창작 가요에서 대상을 받은 곡은 '동백나비'라는 노래이다. 나비가 날아서 동백꽃에 앉았더니 붉게 물든 날개를 가졌다는 가사가 담긴 노래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노래다. 수상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그래서 더 감사하다. 대학가요제 본선 진출 같은 경우에는 '한 풀이 뱃놀이'라는 노래였다. 어찌 보면 대학가요제 취지랑 안 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학가요제인 만큼 다양한 장르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좌절하더라도 행복을 꿈꿨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었다.



여성가장부 장관상도 받았는데, '꽃신'이라는 노래 덕이다. 위안부 피해를 위로하는 공모전이 주최된 걸 보고 곡을 만들었다. 여성가장부 장관상이 3등 격인데 너무 뜻깊은 상이라 감사했다.

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활동에 있어 인정을 받는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신념을 지지 받는 느낌이라 매우 감사하다.

'동백나비', '들꽃길' 등 노래가 의미가 있다. 계기가 무엇인가?

누군가는 아픈 역사로 노래를 만드냐고 할 수도 있다. 역사적 아픔을 노래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우선 활동명이 노래하는 달이라는 한자 이름이다. 음악에 있어 전통을 접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자연히 현대음악을 한국의 고유 정서나 전통에 더해보자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아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나 나라를 위해 희생된 사람에 관심이 이어졌다. 애국적인 느낌을 노래에 담은 걸 좋아하는 취향이 이런 곡을 만들게 된 이유다.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순간과 기뻐던 순간은 언제인가?

공연과 대회를 준비하면서 매일 하는 건 합주다. 곡을 만들고 편곡을 하고 합주를 하는 과정에 음악 뿐 아니라 태도, 가치관 등도 맞춰 가야하는 때가 있다. 팀원들과 '어떤 게 더 나은가?' 등을 이야기 하는데 잘 맞는 순간도 있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때가 늘 막막하고 어렵다. 그리고 학회장 활동을 하면서 학과 내외부 공연 등도 준비해야하면서 개인 활동을 더 해가니 체력적인 부분부터 심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았다.

기쁜 순간은 결국 힘들었던 순간과 이어진다. 그런 어긋남들이 딱 맞춰갈 때 기쁘다. 제일은 팀원이라는 누군가가 의견을 맞춰가며 함께 활동한다는 것이다. 감사하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갈 계획인가?

전통적인 정서와 현대음악을 융합하여,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국악이라는 장르를 대중화 시키고자 하는 게 음악적 방향과 최종 목표이다.

졸업을 앞두고 있다. 이제 학생 신분이 아니라 사회인이 되는 것이다. 사회로 나가서도 음악을 놓지 않고 여러 대회 등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신념인 한국 고유의 정서와 현대 음악의 조화를 더욱 더 연구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가월의 노래로 국악이 조금이라도 더 대중화가 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작곡가 노래하는 달, 가월과 프로젝트팀 'KOREA MUSIC PROJECT 가월'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달라.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김진하, 박철영, 최수진 기자

교내단신

모두가 즐기는 축제 알로윈

지난 10월 30일 천연잔디구장에서 '해피 알로윈' 축제가 열렸다. 지난해부터 열린 축제에는 많은 학우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해 분장을 하거나 푸드 트럭과 플리마켓, 타로점 등 부스를 통해 축제를 즐겼다. 대학본부 계단에서는 무대가 마련되어 소리틀, 용마음원단, SM nation 등 동아리 공연이 열려 축제의 열기가 더해졌다. 10시에 마무리된 축제는 마지막까지 참여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또한 27대 학생회는 축제의 흥을 더하기 위해 할로윈 분장과 신서유기의 신묘한 등 다양한 캐릭터 분장을 통해 릴레이 스탬프 이벤트를 진행했다. 폴라로이드, 에어팟 등 경품이 준비되어 학우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학우들이 직접 참여하는 할로윈 분장 콘테스트도 눈길을 끌어 한층 재미가 더해지는 축제가 만들어졌다.

작업치료 M&M 동아리 제8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

작업치료 전공동아리(작업치료 M&M)가 지난 10월 23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9년 제 8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에서 작업치료 재능기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기부대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기부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 및 단체, 개인을 발굴, 포상하여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 31개 기관/단체와 9명의 개인이 선정됐다.

작업치료 M&M 동아리(지도교수 정재업)는 매년 교내외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에 다수 참가했으며 특히 2017~2019년 대학생 재능기부 봉사단으로 선정되어 인

근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작업치료활동을 매 학기 진행하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작업치료와 학생들은 작업치료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봉사자와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건축과 졸업작품전

지난 11월 12일 대학본부 3층에서 건축과 졸업작품전시전이 열렸다. '만남'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작품전에는 건축과 2학년 10명, 도시공간디자인과 2학년 8명이 참가해 각 과마다 1점씩 작품을 출품했고, 3학년은 건축과 14명이 7점을, 도시공간디자인 13명이 6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이번 졸업작품전은 2년 만에 개최되어 눈길을 끌었다. 1학년 또한 각 팀마다 1명씩 지원을 해 건축과와 도시공간디자인과 모든 학생이 협업한 전시가 되었다.

작품전 오프닝에는 고기채 총장, 정태경 대외부총장, 마정순 행정부총장 및 처장단과 교수진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노고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호텔조리베이커리과 월드푸드챔피언십 수상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19 KOREA 월드푸드 챔피언십'에서 호텔조리베이커리과 1,2학년 학생들이 출전하여, 최고의 영예인 대상(2명)을 비롯하여 금상(4명), 동상(10명)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호텔조리베이커리과 학생들은 꾸준히 대회를 준비하여 여러 번 수상했던 경험과 전국 단위의 소물리에 대회 등에서 선보인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베이커리 부분은 지난 5월에 열린 '2019 국제요리 & 제과대회'에서도 금상과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경연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예랑,

정선문 학우는 이전 5월 대회에서 은상 수상 이후 아쉬움을 안고 도전하여 쟁취해낸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값진다고 전했다. 두 학우는 "대회를 준비하며 철야연습으로 힘들었지만 달라진 제품기술력으로 보람찬 마음이었다."며 "대상까지 받고 실력을 인정받고 나니 이제는 제과기능장을 넘어서는 최고의 제과제빵 장인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2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우리 대학 간호학과가 송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제2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지난 10월 30일 가졌다. 마로니에홀에서 열린 선서식은 2학년 간호학과 122명이 참여했다.

선서식은 이경원 기획처장, 김정숙 학부장 및 여러 교수진들과 학우, 가족들이 참석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선서생들은 송고 정신을 되새기는 촛불의식과 간호 대상자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윤리 원칙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하며 의지를 다졌다.

이경원 기획처장은 "선서식은 송고한 간호 정신을 이어 받아 평생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맹세하는 정신적 자격을 얻는 시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의료행위를 넘어서 돌봄으로서 표현되는 송고한 사랑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항공서비스과 제2회 선서식 개최

19학번 학생들이 서비스인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지난 10월 31일 봉사관 콘서트홀에서 개최하였다. 선서식에는 마정순 부총장과 유동일 학과장 및 교수진과 항공서비스과 학우,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선서식은 원 수여식, 선서, 축사, 축하동

영상 시청으로 진행되었다. 1학년 선서생들은 항공서비스과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성숙한 서비스인이 되겠다는 선서를 통해 다짐했다.

마정순 부총장은 "이번 선서식을 통해 항공서비스 종사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품성을 다짐하길 바란다"며 선서생들의 다짐을 지지했다.

항공서비스과는 2018년 개설되어 올해 첫 번째 졸업생이 사회에 진출하게 될 신설학과이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교육 환경 개선 및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실습실 환경개선과 비행 중 안전 보안등의 실습을 가상 체험할 수 있도록 VR, 실습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작업치료과, 물리치료과 학술제

한해 마무리가 다가오면서 학과들의 학술제가 연일 열렸다. 지난 10월 15일에는 마로니에홀에서 작업치료과 선서식 및 학술제도 열렸다. 학술제에는 작업치료과 학우들과 교수진 등 120명이 참여했다. 박수현 학과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학술제 및 선서식은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한 윤리강령 낭독과 기원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작업치료사로서의 마인드를 일깨우고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동료들을 대하고 함께 협력한다는 선서를 다짐했다.

10월 30일에는 물리치료과의 학술제 및 선서식이 마로니에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선서생은 3학년 43명이었으며 학술제에서는 2학년 46명이 6팀으로 나눠 발표를 진행했다. 학술제는 발표 논문에 대한 포스터 전시를 시작으로 6개의 논문이 발표됐다.

물리치료과 김현숙 학과장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학술제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 뜻깊은 행사였다는 격려사를 전했다. 이후 3시부터는 안재훈, 최동준 교사가 초청되어 취업 및 학술 특강이 진행되었다.

제21회 여주대 문예대상 공모 수상작

대상 - 소설

청어

김효린 (방송영상미디어과)

여섯 살 코흘리개 시절, 제희의 크레파스는 항상 파란색만 몽톡하게 달았다. 제희가 좋아하는 분홍색이나 빨간색은 옷이나 물건에 겨우 들어간 게 전부였는데, 파란색과 하늘색을 제외한 크레파스는 모두 새것이나 다름없거나 넉넉하게 남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제희의 유년은 파란 물감을 푼 듯 시퍼런 바다가 담 너머에서 일렁이는 아주 작은 섬에 살았다.

하루면 섬 구석구석을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제희의 섬은 '벽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따금씩 낚시배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벽도를 '벽장도'라고 불렀다. 중학교 때, 어느 한 낚시꾼이 부둣가에서 놀던 제희에게 해준 말이었다. 벽장처럼 한 구석에 꼭 박혀있는 섬이라고 바다사람들이 벽장도라는 이름을 붙여줬단다. 제희는 벽장도라는 이름이 싫었다. 누가 벽장도라고 말할 할라치면 뒤에서 몰래 눈을 흘기곤 했다. 외지인이 붙여준 그 이름을 따라가듯 '벽장같이 꼭 박혀있는 섬'인 탓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곳을 벗어나길 빌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희는 덩달아 벽장도가 싫어졌다. 꼭 자신이 핏집 수족관 속 물고기가 된 기분이었다. 뼈끔뼈끔 숨만 쉬어가며 자신을 지나치는 사람들이 세상의 전부인 핏감 고기처럼 말이다.

부둣가라고 하기도 뭐한 낡고 작은 부둣가는 벽도의 시작이었다. 각 집의 어선이 쫓르륵 줄 선 부둣가는 어릴 적 제희가 하염없이 바라본 풍경의 일부였다. 그 위로 백아저씨의 핏집이 하나, 자신이 천부보다 야끼는 슈퍼 할머니의 초라한 판잣집 슈퍼가 핏집의 왼편에 있었고, 뒤로는 크고 작은 판잣집 서너 개. 그 뒤로는 크고 작은 숲이 두 덩이. 눈에 띄는 민둥 동산이 하나. 벽도의 풍경은 제희의 스케치북 한 칸에 다 들어 갈 정도로 작았다. 그 탓에 벽도를 한 바퀴 산책해도 시간이 남아돌던 제희는 매일 그림을 그렸다. 마룻바닥에 배 깔고 누워 크레파스를 들고 아무거나 그렸다. 제희가 자라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도 색연필을 들고서 내내 그림을 그렸다. 너 또 그림 그리냐. 흑시라도 그림 그럴 생각은 하지마라. 아빠의 불안한 잔소리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엄마야, 나도 서울 가서 살면 안되까. 벽도살이 징하다"
"가스나가. 니 애비 들으면 우짖라고 자꾸 서울 서울 하고 자빠졌디아."

열여섯 살. 제희네의 저녁 대화는 늘 이런 식으로 끝이 났다. 산새도 울지 않는 새까만 저녁 위로, 제희의 우울 또

우수 - 소설

안개꽃과 엄마

김서영 (물리치료과)

1장. 상담실

작은 평수의 상담실은 아늑한 느낌을 가져다준다. 남자는 서글서글한 눈매에 웃는 상이라 누구나 호감 가질만한 얼굴을 띤다. 포근히 안아주면서도 날카롭게 사람을 파악하는 면모가 있다.

문을 열며 누군가가 입장한다.

무표정도 아닌 웃는 표정도 아닌 어정쩡한 표정의 여자가 입을 굳게 다문 채 들어온다. 의자에 앉더니 의사를 마주치지도 못하고 책상 유리만 쳐다본다. 남자는 모니터를 보다가 다시 여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질문한다.

네. 어떻게 오셨죠?

- 대상		
• 소설	청어	김효린 (방송영상미디어과)
- 우수		
• 수필	할머니	김현지 (아동보육복지과)
• 소설	엄마	김서영 (물리치료과)
• 소설	의미 모를 편지	김민경 (방송영상미디어과)
- 장려		
• 수필	너무를 넘어	남선우 (물리치료과)
• 시	장마	송인철 (실용음악과)
• 시	하얀 민들레	이은빈 (사회복지상담과)

* 게재 이외 수상작과 전문은 여암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한 같이 드리워졌다. 제희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다 문득 끼어드는 저녁의 대화에 손짓을 멈췄다. 점차 제희의 스케치북 위엔 새파란 바다 대신 회색 도시 빌딩이 빼곡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서울. 작게 적은 글씨를 보다 제희는 지우개로 벽벽 지워버렸다.

"제희는 얼굴도 예쁘장하니께, 서울로 가야쓰겠다. 꼭 가서 사람들 틈에서 살아라잉. 알겠나아?"

몇 주 전, 사탕을 쥐어주며 슈퍼 할머니가 해준 말이 생각났다. 꼭 사람들 틈에서 살아라..... 꼭..... 제희는 영문도 모른 채 눈시울을 붉혔다. 하염없이 얼굴을 타고 소리 없는 울음이 흐르자 그때서야 색연필을 내려놓았다.

"제희 씨. 제희 씨."

"아! 네."

"무슨 생각해요? 톱 불려도 듣질 않네."

"죄송합니다."

제희의 눈이 순간 초점을 잃었다 다시 또렷해졌다. 정신을 차려보면 새하얀 사무실 안에 있었다. OO 그룹 마케팅 팀. 기억 속을 헤매다 다시 돌아온 곳은 그토록 원하던 서울 속이었다. 매정히 돌아선 고향이 문득 생각 난 것은 남겨두고 온 미련 탓이었다. 슈퍼 할머니. 연주야. 엄마. 제희는 미련을 남긴 이름들을 몇 번이고 곱씹었다. 다시는 생각 날 것 같지 않던 바닷내가 피어올랐다.

... (후략)

아. 네. 사실 물어보려고 왔어요. 제가 정말 모르겠어서요. 제가 사는 이유를요.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눈에 눈물이 고인채로 말을 이어 나간다.

정말로 제가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제가 죽는 게 두려운 거 같아요. 아.....아니 내가 왜 사는지 알고 싶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것들이 제 머리 속을 채우고 있어서요. 그래서 왔어요. 사실 알아요. 제 문제를 해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근데 그래도.....

여자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계속 눈물을 손으로 닦으려 한다. 이런 일이 처음인 양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의사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드러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미덕인 양 가만히 앉아있다. 여자는 눈물을 소매로 닦고 진정이 되었다는 듯 자신의 가슴에 있던 말을 속사포로 내뱉는다.

아니. 내가 차라리 종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뭐가 잘나서? 아니, 내가 뭐가 못나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내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삶이 고통이란 말 정말 맞아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이예요. 내가 왜 살아야하는지. 도대체 왜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 하나 없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고통이고 지옥이예요. 내가 언제 죽는지. 날 도대체 누가 만든 건지 진짜. 미친 듯이 알고 싶어요.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 수 없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미쳐버릴 거 같아요.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누구인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위대한 존재가 될 사람인가. 전생은 있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남는 끝인가. 전생? 솔직히 안 믿어요. 그래서 더 죽음이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걸 진짜 용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더 무서워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왜 하는건지, 무엇을 위해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삶이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제 끄떡하기까지 해요. ... (후략)

우수 - 소설 의미 모를 편지

김민경 (방송영상미디어과)

[네가 내 곁을 떠나간 3월의 봄날을 기억해?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너무나도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었어. 포근하게 깊은 잠에 빠진 널 도저히 깨울 수가 없더라. 그제야 편해진 것 같아서 차마 너에게 손을 뻗을 수조차 없었어. 널 만지는 순간 부서질까봐, 사라질까봐 너무 무섭기도 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 나로 인해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떠들면서 잘 지내 다행이지? 그러니 너도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길 바라. 오늘은 이만 줄일게. 내일 보자.]

무엇을 쓴 건지 의미 모를 내용의 종이를 신경질적으로 구기며 휴지통으로 던졌다. 부질없다. 정말 너무 부질없는 것이다. 매일같이 답이 오지 않는 거짓 편지만 써내려가면

서 하루를 보낸다.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본다면 한숨 쉬면서 혀를 끌끌 찰게 변하지. 그래. 지금 나를 쳐다보는 엄마의 모습처럼. 그저 한심하고 답답하겠지. 방에서 한발 자국도 나가지 않는 내 모습이, 고작 먹고 자고 뺏게 안하는 식충이 같을지도 몰라. 하지만 너무 무서운걸. 네가 떠난 이후로 세상은 나에게 너무나도 커다랗고 큰 압력과도 같아 한줄기의 빛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암흑 말이야. 이런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러니 매일 같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하나 뿐이야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난 정말 죽고 싶을 테니까.

“오늘 낮의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을 예정입니다. 따뜻한 걸옷을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기온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날씨 예보를 영혼 없이 바라보던 지희는 리모컨의 전원버튼을 무심하게 꺾 누르더니 한쪽 바닥 구석으로 밀어 던졌다. 쿠당탕 쿵-하는 소리와 함께 리모컨은 비명을 지르듯 굉음을 내며 몇 번을 바닥에 튕기다 힘없이 엎어졌다.

“너도 한심하네. 그렇게 엎어지는 모양새를 보니……하..참..내가 뭐하는 거람.”

지희는 비웃듯이 얘기를 하다가 정말로 한심한 자신의 모습에 지끈거리는 머리를 쥐으며 눈을 감았다 떴다. 짹 짹이는 시계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채우며 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희는 몇 분 정도를 소파에 누워 로봇처럼 눈만 깜빡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마침내 어느 한곳을 바라보며 멈춰 섰다. 빛이 바랜 것인지 조금은 낡아 보이는 앨범 하나가 바닥에 놓여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소파에서 벌떡 일어난 지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낡은 앨범을 소중히 들어올렸다.

“이게 왜 여기에……?”

쌓여있던 먼지를 툭툭 털어내니 [사랑하는 나의 빛]이라고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래. 생각해보니 난 나의 빛 그 자체였지. 어두운 내 삶에 따뜻한 햇빛을 내려주었던.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작은 빛. 그런 소중한 이아가기가 담긴 앨범이 왜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었던 거지? 지희는 의문을 품으며 살며시 앨범의 책장을 넘겨보았다.

첫 장엔 해맑게 웃는 너와 나의 사진이었다. 사라져 가는 기억 속을 더듬으며 그날의 우리를 생각해 보았다. 아주 작고 어렸던 우리의 처음은 분명, 만약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후략)

우수 - 수필 할머니

김현지 (아동보육교육과)

십일월의 아침은 고요하고 스산합니다.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 나는 십사 년이 지난 지금도 저 새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간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 아득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라색 국화에게 말을 거는 어머니 뒤로 당신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꿈은 검은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의 육신은 깨어났지만 영혼이 멋대로 당신을 추억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사년 전 이맘때에도 당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생일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당신과 당신의 딸이 앉아있었습니다. 남동생이 축하 노래를 불렀던가요. 당신은 만족스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룻배를 타고 안개 낀 바다를 건너 당신이 있는 탑 꼭대기로 가는 꿈이었습니다. 워낙 희한한 꿈이라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당신은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나에게 이리 오라 손짓했습니다.

침대 위에 눈을 감고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아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삶의 미련과 슬픔을 모두 버린 듯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사년 전 당신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부의 연은 질기고 성긴 것이라 혈연조차 막을 수 없는 것이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온 날 거실에 쓰러져 울음을 토해내셨습니다.

덩굴장미를 심자고 제안한 건 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름 계절을 능금처럼 장식한 덩굴장미는 빈 촛대만 너울거렸습니다. 꽃이 피어나보지도 못하고 시들었습니다. 당신이 심은 벚꽃나무는 몇 년 사이 장성하여 대문 앞을 지키는 늠름한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나무 아래는 길고양이가 사람 눈을 피해 낮잠을 자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살구나무와 앵두나무, 포도나무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초록화관과 달콤한 양식을 주었습니다. 이슬이 맺힌 풀잎이나 서리가 내린 들판을 보는 것은 실로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온온한 가로등 불빛이 켜지고,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무리가 수놓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별들의 수만치 당신이 준 행복이 이다지도 많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붉은 벽돌집의 마녀. 어린 시절 나는 당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성들여 그린 그림은 당신의 이목을 끌지 못했고 네 살 어린 남동생만이 당신의 애정을 독차지했습니다. 당신이 회초리를 들면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 채 그저 빌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를 못살게 구는 당신을 보며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삼킨 적도 더러 있었습니다.

연약한 달빛이 새어 들어오고, 바깥은 은행 향으로 절절합니다. 투명하게 가라앉은 시간. 이렇게 위안하고 나니 꼭 아름다운 꽃도 없고 꼭 더러운 목숨도 없더라는 누군가의 말을 떠올립니다. 삶과 죽음은 이어져 있고 슬픔과 환희는 같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가장 기꺼워하면서 가장 슬퍼한 건 나였습니다. 당신의 죽음에 나도 데려가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나의 첫 숨을 당신의 마지막 숨과 바꿀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병실에서 당신을 깨안은 순간, 오래된 미움과 설움과 원망이 눈물로 응축되어 그날 내 가슴을 떠났습니다. 당신의 고맙다는 말 한 마디에.

간밤에 꿈을 꾸는 당신의 낡은 반전고리 함을 발견했



클립아트코리아

기 때문입니다. 너덜너덜 헤지고 때가 탄 골무. 그에 꼭 맞추어 포개어졌을 거칠고 주름진 당신의 손. 내가 배알이로 눈물지를 때 당신 손이 약손이라며 배를 어루만져 주던 따스한 눈길을, 나는 아마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심사평

2019학년도 문예대상에선 우여곡절이 많았다. 우선 응모작이 적었고, 학보사에 사고가 생겨 일정이 지연됐다. 그럼에도 전체 16개 학과 46명이 응모하였다. 시는 26명, 소설과 수필은 각각 10명의 학생들이 공모했다.

심사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렵다. 올해는 '진정성 있는 생각을 명확하고 가슴 울리게 적었는가'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매년 문예대상을 하면서 느끼지만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에 놀라면서 전반적으로 시, 소설, 수필이라는 형식에 대한 이해가 아쉬웠다. 소재가 겹치는 경우도 많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마침표의 부재 등도 눈에 밟혔다.

시의 핵심은 짧은 문장과 운율이 아니라 수수께끼를 푸는 맛, 숨겨진 보물을 찾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힘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조금은 시와 노래가사의

차이에 대한 고민, 상투성과 모방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아 작품 중 시적인 상징과 은유를 잘 활용한 '장마'와 '하얀 민들레'를 장려로 선정했다.

수필은 일정한 형식이 없지만 인생이나 자연, 일상생활에서의 체험을 통해 본인의 느낌이나 생각을 적는 글이다. 일기, 자서전, 후기, 논설문 형식의 글을 말한다. 가슴을 울리는 '할머니'와 명쾌함이 눈에 띄는 '너무를 넘어'를 우수와 장려로 선정했다.

소설은 지옥 같은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안개꽃과 엄마', 상실감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그려낸 '의미 모를 편지'를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는 부유하는 삶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잔잔히 그려낸 소설 '청어'를 선정했다. 주어와 술어의 불일치나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아쉬웠지만 부유하는 삶과 그럼에도 놓칠 수 없는 인생의 희망에 대해 놀

라운 통찰을 보여줬다는 의견을 모았다. 소설에 의하면 희망은 외부에서 들어와 내 속에서 잉태된다. 결국 관계(만남)와 우연이다. 학생들이 대상작을 통해 자신안에 내재된 우연한 희망을 찾길 바란다.

100m를 3초에 달리는 치타는 먹이에 맹렬하게 접근하지만 1분에 5m를 가는 나무늘보는 은밀하게 접근한다(물론 나무늘보의 먹이는 나뭇잎이다.) 문예대상은 어찌 보면 느낌에 대한 투자이다. 1년을 투자해 한 편의 글을 완성해 본다면 그것이 빠르지는 않지만 느리고 은근하게 삶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인생의 고민을 함께 하고 싶다면 내년 문예대상 응모와 도서관 3층 자료실을 찾아주길 바란다.

응모한 모든 학생분들께 감사드리며 당선자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 신혜승, 이동선, 류재용, 장부영

학교를 만나다 - 무인항공드론과 꿈을가지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온다. 같은 캠퍼스 아래 같은 공간에서 강의 듣고 공부를 하기에 대다수 자신의 전공 외에 다른 학과의 특별활동에 대해 알지 못한다. 군사학부의 경우 강의실 등을 함께 사용

하지만 각 과마다 특색이 크고, 일정이 많아 서로에 대해, 어떤 수업과 실습이 이뤄지는지 모르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우리는 '학교를 만나다'를 통해 군사학부 중 무인항공드론과에 대해 소개하고자한다.

학생을 만나다



'드론'을 쓰지는 못해도 들어본 적은 많다. 웅웅거리며 날아다니는 저 물체는 무엇이고, 저걸 배워 무엇을 하는지 알기위해 무인항공드론과 정지훈 학회장과 소영주 수석학생을 만났다. 무인항공드론과는 이번에 1기로 신설된 학과이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많이 발전되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받는 학과이다. 대학의 대표학과로 자리 잡아 많은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무인항공드론과는 군 간부로 일하며, 4차 산업으로 뜨고 있는 드론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큰 학과이다. 정지훈 학회장과 소영주 학우는

자신의 과에 대해 군사학부이기에 실습 위주의 수업이 많다고 전했다. 실습과목으로는 조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이 대다수고, 수업을 잘 따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관 자격증에 관한 수업도 있어 공부가 재미있기도 하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전했다. 수업 중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실습은 직업 조종기를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시뮬레이션 실습이라고 했다. 반대로 가장 힘든 수업으로는 겨울 방학동안 3주가량 진행되는 집체교육이라고 한다. 자격증에 대한 이론수업 뿐 아니

라 체력운동까지 겸하기 때문에 진이 다 빠진다고 말하는 두 학우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다. 무인항공드론과는 신설학과임에도 경쟁률이 높은 과이다. 드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신설과라는 메리트가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정지훈 학회장은 신설학과이기에 새롭게 추진되는 실습이 많고, 여러 기관에 업무협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어 학과에 들어오게 된다면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두 학우는 자신들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드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가장 적합한 학과라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두 학우는 학과에 들어와 힘들어도 교수님들이 잘 지도해주시고 실습과 체력 운동을 하다보면 동기나 선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극복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즐거운 학과생활을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정지훈 학회장과 소영주 학우를 보며 두 사람이 자신이 생각한 목표과 꿈을 포기하지 말고 꼭 이룰 수 있길 바랐다.

- 학회장이 전하는 우리 과의 장점
 - 교수진이 대부분이 군 출신으로 간부 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 단체 생활을 통해 새로운 나를 찾게 된다. 책임감과 자신감 업그레이드!
 - 첫째도 드론, 둘째도 드론이다. 드론 축구, 드론 촬영 등 직접 조종할 수 있다.
 - 드론 축구장과 레이싱 경기장도 만들고 있고, 여러 기체를 만질 수 있다.



스트레스 프리 '힐링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문득,
힘들다 느껴질 때 마음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 | 개인상담(진로 및 심리), 집단상담, 심리검사
- | 명상실 이용 가능(음악, 그림, 호흡, 신체이완, 만다라)
- | 이용시간 : 월-금 9시~18시(방학 중 10시~15시)

문의 | 학생상담지원센터 031-880-5567

칼럼

흙 빛 중세도시 히바(KHIVA)를 가다



히바 전경

히바는 우즈베키스탄 북서부에 위치한 호레즘 주의 도시로 실크로드의 길목에 있다. 히바는 부하라와 함께 중앙아시아의 종교 도시이다. 주산물은 면화, 벽돌, 용단, 가구 등이며 도자기가 유명하다. 이슬람 건축이 유명하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유서 깊은 주마 모스크는 10세기에 건축된 후 수 차례의 재건 공사를 거쳐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주마 모스크는 이슬람 건축물에 있는 아치형 정문이나 돔도 없는 단층의 소박한 장식조차 없다. 그렇지만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약 3미터 간격으로 놓인 212개의 목조 기둥이다. 섬세하고 화려하게 조각된 문양을 통해 느껴지는 조각기술과 바닥에 천장을 통해 빛이 하나 돌씩 떨어질 땐 신기루마저 피어오름을 느낄 수 있다. 주마 모스크 바로 옆에는 전망대의 역할을 하는 높이 45미터의 미나레트가 있다. 이 미나레트는 히바의 마지막 왕의 장인인 '이슬람 훗자'가 완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슬람 훗자는 부하라의 칼란 미나레트보다 높은 탑을 만들기 위해 최고의 건축가들을 동원하여 전통적인 히바 스타일의 폭이 좁고 외관과 탑을 휘감은 화려한 모자이크 문양을 조각해 놓았다. 이곳은 99개의 계단을 통해 마침내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는데 히바 이찬칼라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왜 히바를 흙, 빛이 스미는 중세도시라고 극찬하는지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히바는 과거의 문화유산이 가득한 도시이다. 히바를 감싸고 있는 이천 칼라는 흙으로 만들어진 토성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도시 전체



주마 모스크

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히바에서는 타임머신을 탄 듯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확신하고 과거로의 여행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이다. 여행은 떠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유동일
항공서비스과 교수

사설

손흥민과 박항서

미세먼지만큼 짙은 정치상황과 경제적 혼돈으로 우울한 시간이지만 청량제와 같은 신나는 소식이 들려온다. 해외 축구계에서 들려오는 두 소식. 손흥민 선수와 박항서 감독이 이룩한 기적 같은 성과들은 국민들 모두에게 긍지를 심어주었다. 지난 12월 8일 새벽, 토트넘 소속의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번리와 경기에서 70m의 거리를 질주하면서 8명의 수비수를 따돌리고 골을 넣었다. 탁월한 주력과 드리블 능력, 상황을 읽는 판단력과 골 결정력까지 어느 하나 놀랍지 않은 것이 없다. 한국 걸출 선정 올해의 스포츠 선수 1위에 오른 손흥민은 아르헨티나의 축구천재 마라도나보다 더한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12월 10일, 동남 아시안게임(SEA)의 결승전에서 탁월한 전술로 베트남 축구 대표팀에게 금메달을 안긴 박항서 감독은 "경제 문화 사회발전에 영감을 줘 베트남을 강국으로 건설하는데 모든 사람이 아바지 하도록 한" 업적을 세웠다. 이미 아시안게임 4강 신화와 10년만의 AFF 스프스키컵 우승을 달성하는 등 연거푸 새 역사를 쓴 그는 SEA 게임까지 석권하면서 베트남 대표팀의 오랜 염원을 이뤘다.

손흥민과 박항서는 축구선수와 감독으로 충분히 감탄할 만하고 박수 받을 만한 업적을 쌓았다. 하지만 그 업적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만큼이나 많은 부분에서 비교된다. 축구선수이고 국가대표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국제적인 명성이나 기대의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다. 손흥민은 천재적 성향으로 앞날이 기대되는 대스타이다. 하지만 박항서는 성실한 선수였고 감독이었던 보통사람으로 인식된다. 베트남에서는 영웅이지만 세계 축구계에서의 명성은 두 사람의 연봉차이만큼 차이가 있는 듯하다. 그래서 같은 시기의 비슷한 감탄이지만 세인들의 의식에는 스타로 길러진 천재의 예상되는 업적과 여전히 평가 절하된 보통사람의 예상치 못한 업적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

두 업적을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될지 모른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그 괴리감이 우리 사회의 지향점과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손흥민은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우리사회의 '스타 키우기' 노력의 결과이다. 천재성이 있는 기대주를 발굴하고 키우기 위해 전 가족이 올인하는 일은 이미 일반적인 현상이다. 세계에서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 선수를 40명씩이나 보유하는 여자골프는 한국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일 상에서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상류층으로 기르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마찬가지이다. 손흥민은 그런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그에 반해 박항서는 적당한 스타였다가 조용하게 묻혔던 보통사람의 성공담을 대변한다. 국가대표선수였으나 크게 부각되지 못했고, 국가대표 감독이었으나 조용히 잊혀졌다. 하지만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선택했고 착실한 도전 끝에 큰 업적을 남겼다. 박항서를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으로 다시 부르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베트남에서와 같은 업적을 남길 수 없다는 판단이 대세다. 외압으로 제대로 된 선수선 발이 어렵고 시합도 뜻대로 이끌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성적이 나쁠 경우 기존의 성실한 이미지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사회적 비난도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여건이 박항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손흥민과 박항서의 성장과 업적은 성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인 성장 다이어리를 표방한다. 스타로 육성하거나 스스로 개척하여 스타가 되게 하는 성장 다이어리다. 사회는 스타를 육성하는 것 뿐 아니라 스스로 스타가 되도록 도전하고 인정해주는 여건을 항상 조성해야한다. 스타로 키워지지 못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여건은 열려야한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말아야한다.

최종철
건축토목과 교수

기자수첩

악플을 고발한다

악플은 악성댓글 또는 악성 리플로, 사이버 범죄 중 하나이다.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헐뜯음을 하는 것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악플러라고 한다. 악플에 대한 문제는 인터넷이 활용되면서부터 나왔지만 최근 고(故) 설리와 고(故) 구하라의 죽음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경우 연예면 기사에는 댓글창을 없애는 등 조치가 나오고 있지만 SNS를 통해 개별적으로 보내는 악플 메시지의 경우 가해자 스스로가 행동을 고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

악플의 대상은 다양하지만 특히 연예인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악플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악플을 건디다 악플러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지만 그제서야 반성하며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 취하 후 또 악플을 지속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특히 연예인과 유튜브버들의 경우 방송에서 뜨는 게 우리 덕이다 이런 마인드로 악플을 다는 이들도 많다.

악플은 에너지를 비생산적으로 소모하는 일이다. 혹자들은 돈을 잘 버는 연예인이나 유튜브버들에게 질투를 느껴 악플을 단다고도 하지만 고소 후 가

해자들의 대부분 '심심해서', '재미삼아' 했다는 답변을 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단순히 '당신이 싫다'를 넘어 '꺼져라', '죽어라' 처럼 심한 말을 하거나 욕설, 성희롱을 서슴치 않는 경우도 많다.

설리의 죽음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 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 오기도 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톡 등 포털 내 기사에 댓글 실명제를 활용할 것, 기자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기사를 쓰면 해당 기자자격을 정지하는 벌을 줄 것' 등이다. 특히 인터넷 신문사가 늘면서 네티즌이 그냥 던진 말로 기사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어 해당 청원은 눈길을 끌었다.

물론 악플처벌법이 있다. '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법', '모욕' 등 이런 법들이 악플에 대한 처벌이다. 그러나 요즘 악플이 비연예인(일반인)을 대상으로 늘고 있어 이 외에 직접적인 악플처벌에 대한 법안이 나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대안정치연대에서는 한 논평을 통해 '가수 설리의 죽음을 계기로 악플 방지법 제정 운동이 벌어지

고 있는데 타당하다'며 '이미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는 관련된 논의조차 없었다. 관련 상임위는 즉각 관련법 심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2017년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와 인터넷 등에서 상대를 모욕할 경우 형법상 모욕죄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현재 이 법안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본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사회적 약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다.

인터넷은 배설창구가 아니다. 악플 피해가 특정 대상이 아닌 보통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더 많은 죽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임영선 기자

■ 어디까지 가봤니?

아침의 고요함

아침고요수목원은 경기도 가평군 축령산에 위치하고 있다. 5,000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원예 수목원이다. 수목원은 '오마이비너스', '구르미 그린 달빛', '미남이시네요', '무한도전' 등 배경으로 한 예능,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널리 알려졌다.

고향집정원, 허브정원, 무궁화동산 등 22개의 특색 있는 주제 정원과 3곳의 실내 전시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계절별로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전시행사가 열린다. 겨울에는 오색별빛정원전으로 유명하다. 12월 6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열리는 축제로, 사랑, 동물, 식물 등 다양한 테마를 표현한 친환경 소재 LED 전시가 펼쳐진다. 별빛 점등은 매일 17시이다.

겨울에도 유명하지만 사실 아침고요수목원은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이다. 봄에는 4월부터 봄꽃축제가 열린다. 철쭉 수선화 등 봄꽃이 축령산 전체를 감싸는 아름다운 광경을 느낄 수 있다. 더운 여름에도 그늘이 많아 편하게 돌아볼 수 있으며 수국과 아이리스, 무궁화 축제를 연다. 가을은 관광객이 가장 몰리는 때이다. 국화와 단풍축제가 열리며, 한복대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1993년에 첫 발걸음을 시작으로 20년의 긴 역사를 가



아침고요수목원

진 한국의 아름다움과 한민족의 고고한 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을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방문해보는 것은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최수진 기자

■ 문화산책

공존을 느끼다!

가까이 있지만 먼 단어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예술'과 '역사'이다. 매스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프로그램들을 만들지만 여전히 어렵다. 특히 미술은 학창시절 외에는 적극적으로 보기 어려운 분야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술과 역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특히 미술에 쉽게 접근한다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질 수 있다.

많은 미술관 중 건축, 디자인, 공예 등 다양한 시각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곳으로 국립 현대미술관이 유명하다.

국립 현대미술관은 서울, 덕수궁, 과천, 청주 4관으로 되어있다.

그중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은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궁궐과 조선말기 서양식 건축을 배경으로 근대미술과 관련된 기획전이 많이 열린다.

현재 오는 2020년 2월 9일까지 <광장:미술과 사회 1900-2019>라는 주제로 1900년대부터 50년대의 김환기, 이중섭, 이쾌대 등 유명회화의 그림이 전시된다.

미술관 관람 후에는 덕수궁을 거닐며 조선 말기 역사



한국관광공사

의 쓸쓸함과 나아가고자 했던 의지를 느껴보는 것도 좋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의 입장료는 1,000원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며, 10시~19시(수, 토는 21시까지 야간개장)까지 운영된다. 예술과 역사로 세상을 보고자 한다면 덕수궁으로 가자.

박철영 기자

■ 책을보다

죽음을 아름답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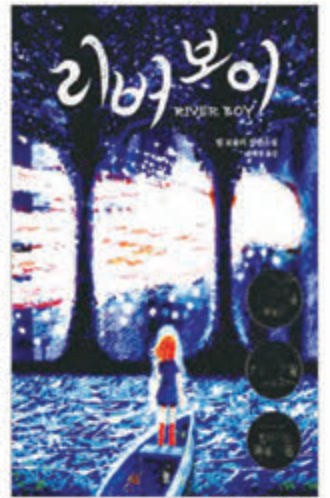
소설 「리버보이」는 15살 소녀의 시선으로 많은 만남과 이별 중 가장 아프고 슬픈 이별인 죽음을 다루고 있다.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와 손녀딸인 제스 그리고 신비로운 소년 리버보이, 이 셋이 만나 화목하면서도 슬프고 때로는 무서운 이야기를 빚어내고 있다.

책은 제스의 시선을 통해 수많은 만남과 이별, 삶과 죽음의 의미, 크나큰 슬픔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런 제스의 모습은 나이기도, 우리이기도 하다. 그녀의 행동을 통해 작가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순간을 던져준다.

「리버보이」의 매력은 멀지만 가까운 '죽음'을 무겁고 진중하게 표현하기보다 신비롭게, 그렇지만 가볍지 않게 표현해 내는데 있다. 이것을 '리버보이'란 소년으로 그려낸다. '리버보이'와의 여정이 할아버지와 여정임을 알게 된 소녀가 그간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이별을 덤덤히 받아들이는 장면에서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겪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한다. 소설은 말한다. "돌부리에 채이고 강한 햇살을 만나 도중에 마르기도 하고. 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어" 삶은 사랑과 추억을 바탕으로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다.

이해정 기자



출판사 놀

■ 독자퀴즈

1. 28대 총학생회 선거 당선자는?
2. 2019년 여주대 헌혈인원은?
3. '가월'의 뜻은?
4. 국립현대미술관 4관은 어디인가?
5. 정시모집 기간은?

★ 2007704@yit.ac.kr 또는 '여주대학교학보사 페이스북 메신저'로 응모해주세요.

★ 추첨을 통해 채택된 학우에게는 CU 편의점 기프티콘(1만원권)을 드립니다.

★ 학과, 이름, 연락처 중 하나라도 미기재시 신분확인 불가로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행사 종료 후 해당 개인정보는 파기합니다.

143호 독자퀴즈 당첨자 |

신희준(항공전자통신과), 박혜지(아동보육복지과) 김한술(호텔관광과), 박현민(간호학과), 강지원(안경광학과)

여주대학교 정시모집

모집 기간 | 2019.12.30(월) ~ 2020.01.13(월)

합격자발표 | 2020.02.04(화)

문의 | 입학처 031-880-5555

